

INHA UNIVERSITY

HISTORIAN

Vol. 16

[목차]

1. 학생회와 학회의 소리	 2
2. 답사의 추억	 5
3. 논문수업 후기	 9
4. 학부연구생 후기	 12
5. 학부생 취업 후기	 13
6. 전국역사학대회 수상 후기	 16
7. 교환학생 합격 후기	 19
8. 대외활동 후기	 21

학생회의 소리

46대 학생회장 김경빈

안녕하세요. 사학과 46대 학생회장 20학번 김경빈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2024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제 1년간의 임기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였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학생회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셨던 교수님들과 조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해준 학생회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를 맡아줬던 고은누나, 유식이, 민규, 우진이, 그리고 부회장을 맡아줬던 윤정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과거처럼 코로나 19의 규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1학기 개강 전에는 신입생들을 맞아 3번의 정모를 진행하였으며, 수강신청 설명회 및 멘토링을 진행하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4월에는 연합MT, 5월에는 춘계 학술 답사가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큰 사업들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9월 23일에는 동문체육대회, 11월 11일에는 사학인의 밤을 진행하여 졸업생과 재학생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오랜만에 해외로 답사도 다녀왔으며, 12월 31일에 작년에 제정된 회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추가로 중간, 기말고사 간식드리미와 개강, 종강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충전기 및 도서 대여 사업, 민원함 운영, 피드백 조사, 과방 프린터 운영과 같은 상시 사업들을 실시하여 학우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미래의 사학과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작년까지도 사학과 학생회와 학회는 소수의 학우들로 인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그 인원은 줄어들고 있었고, 남은 인원들이 더 많은 일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이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더 많은 후배들이 사학과 학과생활에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믿고 제 대학생활동안 함께해온 많은 자리들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어려운 짐을 넘기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지만, 후배들이 더 발전된 사학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학과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학과가 좋았기에 4년 동안 계속해서 학과생활을 해왔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학과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에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떠나가지만 언제나 사학과는 제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학과에서의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영원히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46대 학생회장 김경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사탁본부의 소리

39대 답사탁본부장 표주연

안녕하세요. 39대 답사탁본부장 22학번 표주연입니다. 벌써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찾아오면서 2학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 답사탁본부장의 자리를 끝맺음하는 시간이 다가온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 1박 2일로 다녀온 답사탁본부의 천안 답사가 제 임기의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보통 지나고 보면 늘 무언가의 마지막은 이유 모를 아련함이 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답사를 비롯한 1년간 답사탁본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미흡함이 있었겠지만, 늘 뒤에서 도움을 준 집행부원분들과 묵묵하게 부장의 말을 따라주고 같이 답사탁본부를 이끌며 학회의 심장 역할을 맡아온 2023년도 주인공인 23학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큼니다. 1년간 부장으로서 제가 자처한 2023년도 답사탁본부의 정체성은 기존과의 활동과 차별화된 독특한 활동의 답사탁본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과연 저 스스로 그 목표를 잘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에 선불리 단언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1년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40대 답사탁본부장 선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답사탁본부장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원도 구성이 되었는데, 마치 1년 전 제 모습을 보는 듯하여 기분이 이상하게도 모호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답사탁본부의 미래를 생각하니 동시에 기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도의 저는 제3자의 시선으로 학회를 관망하며 새로운 구성원들의 답사탁본부를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학회장님도 아마 훌륭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2024년에도 답사탁본부 파이팅!

사랑의 소리

15대 인하역사연구회장 김고은

안녕하세요, 인하역사연구회 ‘사랑’ 15대 학회장 19학번 김고은입니다.

다들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셨나요? 이맘때가 되면 ‘선달 그믐밤이 되면 쓸쓸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라’는 과거문제가 떠오릅니다. 당시 급제자 이명환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과 달리 유한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 때문에 쓸쓸해진다고 적어냈습니다. 이러한 쓸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학문을 힘써 실천하고, 깊이 사색하고 반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이맘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쓸쓸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다음 학기에는 학문에 더 정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담입니다.

지난 2023년은 저에게 많은 배움과 즐거움을 주었던 귀한 시간들로 가득찼던 한 해였습니다. 학회장으로서 학회에 함께하여 학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저에게 가장 귀한 시간들 중 하나였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아쉬움과 감사함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인하역사연구회 ‘사랑’은 함께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곳입니다. 격주 금요일 6시마다 5남 501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회원은 상시 모집중이니, 인하역사연구회 인스타그램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활동 중인 학회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부담감과 많은 분량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걱정으로 인해 참여하는데 주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입생 때 학회에 들어가기 위한 결심을 내릴 때 이러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너지’라는 단어는 모두 아실 텐데, 시너지의 어원은 ‘함께 일하다’의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입니다. 학회 안에서 각종 시너지를 내어서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 때에는 ‘동아시아를 발견하다’(저자 송넨선)을 읽고 각자 맡은 장에 서평을 작성하였고 지난 2학기 때에는 ‘사담(史談)’이라는 큰 틀을 주제 삼아 7~8장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하였습니다. 역사학논문작성법을 수강하시는 학회원들이 많아 통일된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보다 각자 더 탐구해보고 싶은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 동안 ‘임진왜란의 군사학적 접근’, ‘조선시대 전염병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 단청의 간소화 검토’,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적 인물 연구에 대한 고찰’, ‘러일전쟁기 대한제국의 외교정책’, ‘1970년대 일본의 전후책임의식의 변화’, ‘2차 여요전쟁 이후 고려의 군사적·행정적 변화’를 주제로 총 7편의 에세이가 작성되었고, 지난 1월 26일 활동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2학기 학회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지난 학기에 논문을 병행하시는 학회원분들이 많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려와 달리 학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관도 와주셔서 감사한 한 학기였습니다. 일 년 동안 부족한 학회장과 함께 열심히 끝까지 달려준 학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신입생으로서 활동에 잘 참여해주었던 연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학회원의 5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 졸업을 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큼니다. 졸업하시는 학회원들의 빛날 앞날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늘 반갑게 맞이하는 선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인하역사연구회 ‘사랑’의 활동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하역사연구회 ‘사랑’의 15대 학회장 김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사의 추억

2023.10.31~2023.11.03

장경민(19)

이번 답사는 대만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 있는 답사로 기억될 것 같다. 2학기 글로벌 역사콘텐츠 탐구 수업에서 대만으로 답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중국과의 양안 관계가 떠올랐고, 다음으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2012), <나의 소녀시대>(2016) 등 유명했던 대만 영화가 떠올랐다. 사실 뉴스, 영화,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비추어지는 대만만 알았지, 정작 대만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해외 답사를 간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대만이라는 나라를 알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대만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대만의 다양한 족군과 그들의 공존과 갈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부푼 기대와 함께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 4일 대만 답사를 다녀왔다. 지금 대만 답사의 기억을 떠올리면 답사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섬의 모습과 슬픈 역사의 섬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28 평화기념공원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발제문을 작성하기 위해 2.28 평화기념공원과 2.28 사건을 공부하였고, 이곳을 공부할수록 단순히 알고 넘어갈 수 없었다. 답사지를 공부하면서 대만 현대사를 이해하고, 오늘날 2.28 사건을 바라보는 대만 시민들의 인식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2.28 평화기념공원은 발제를 맡은 곳이었기 때문에, 답사를 가기 전부터 애정이 있었다. 그리고 답사에서 직접 공원을 걸어보고 기념탑을 보면서 답사 전 공부했을 때와 또 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2.28 평화기념공원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답사를 다녀온 뒤 지금까지 2.28 사건의 역사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뜻깊은 곳이었다. 이외에도 중화민국 총통부, 중정기념당, 국립 타이완 박물관에서 대만의 현대사, 심지어 고산족 원주민의 역사를 보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대만의 새로운 모습들을 찾을 수 있었다.

비록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대만이 어떤 나라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이때의 답사 경험이 대학 생활을 추억하면서 오랫동안 의미 있었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23-2학기 추계답사는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의 섬'의 대만을 발견할 수 있었던 답사였다.

정다운(20)

길었던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해외 답사를 다녀올 수 있어 기쁩니다. 아름다운 섬, 신비롭고 경이로운 대만의 자연경관들을 볼 수 있어 좋았으며 그와 반대로 슬픈 역사 또한 학우들과 배워 나갈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자칫하면 여행으로만 그저 즐길 수 있었을 법한 대만이었지만, 사학과 정기 추계답사를 통해 대만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접했던 대만은 그저 역사책 속에서만 나오던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내용들이 뉴스에 간혹 나올 때마다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만 여겨져 집중하고 듣지 않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계답사를 통해 접해본 대만은 생각보다 슬픈 역사가 그들의 일상 가까이 나타나 있었고, 그들의 문제가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섬이자 슬픈 역사를 가진 대만을 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계기가 과거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모습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기답사 일정을 이행하기 위해 힘써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통솔해주신 여러 학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사의 추억

2023.10.31~2023.11.03

김민수(21)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가장 기대했던 것이 학술답사였기에, 휴학한 학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답사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답사부로 답사 계획 전반에 참여한 적도 있었다. 사실 가장 기대했던 것은 해외답사였으나 졸업 전까지는 코로나 19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아쉬움이 가득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완화되며 이번학기에 해외답사가 가능해졌고, 보통 졸업 전까지 단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터라 고민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했었다.

사실 처음 답사지가 대만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의문만 들었었다. 대만의 역사에 대해서는 장제스와 국공내전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기 전에 수업을 들으면서 대만의 원주민, 자연환경 등에 대해 배우다보니 자연스럽게 대만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수업을 들을수록 답사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갔다. 여느 답사와 다른 3박 4일의 답사였고 대만에 처음 가봤던 만큼 기억에 남는 곳은 많으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과 아쉬웠던 곳 위주로 소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중정기념당이었다. 평소 근현대사를 좋아해 인상 깊기도 했지만, 들어가자마자 마주했던 장제스의 동상과 중정기념당의 규모에 압도당했던 것이 기억에 남은 가장 큰 이유이다. 운 좋게 명물인 의장대 교대식도 볼 수 있었는데, 엄격한 분위기 하에 동상을 수호하는 모습이 대만 역사 속의 장제스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뿐만 아니라 집무실, 장제스와 그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대만의 민주화 과정과 같은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대만 모두 일제의 침략을 겪었던 국가이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아직까지 기억난다. 대만과 우리나라를 연결해서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하니 내가 알고 있었던 역사는 작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만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곳은 국립고궁박물관이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박물관이라 평가 받을 만큼 상당한 개수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어 순환배치하는 유물들은 거의 겹치는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기대했던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고, 유명한 유물들만 몇개밖에 못봐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취옥백채와 상아투화운룡문투구의 아름다움은 즐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번 해외답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맞는 시간이었다고 정의내리고 싶다. 국사학과가 아닌 사학과에 재학 중인만큼 다양한 국가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나는 평소 편식하듯 한국사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는 식견을 넓히고, 나아가 또 다른 국가와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갔던 동기, 선후배와 타지에 가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 더욱 좋았다.

답사의 추억

2023.10.31~2023.11.03

김연지(23)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답사를 가는 거지만 여행을 가는 것처럼 설렘이 앞섰습니다. 답사 수업을 진행하며 방문 할 답사지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답사에 대한 기대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당시 가장 기대가 컸던 장소는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과, 스린 야시장이었습니다. 대만 고궁박물관의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더 자세한 지식을 기반으로 고궁박물관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넓을지, 그리고 진행되는 특별전은 어떤 모습일지 더 기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3개월에 한번씩 전시하는 물품을 교체하여 모든 전시품을 다 보려면 8년이 걸린다'는 내용이 조사 내용 중 가장 인상깊었는데, 그만큼 장엄하고 거대한 박물관을 어떤 방식으로 관람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또, 대만에서의 자유시간과 즐길 만한 먹거리 또한 기대됐는데, 특히 스린 야시장에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직접 답사를 진행하며, 생각지 못했던 양명산과 예류 지질공원에서 더욱 인상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과 스린야시장 또한 대만의 색깔이 짙게 드러나는 장소들이었기 때문에, 대만의 역사와 문화재를 더 깊게 탐구할 수도,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고 느껴본 적 없던 자연환경과 마주했을 때의 경험은 더 생생하고 오래 여운이 남는 기억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양명산에 처음 내렸을 때 마주한 온통 하얀 구름과 안개로 덮여있던 희뿌연 화산의 모습, 또 처음 맡아봤던 유황의 비릿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 보글보글 끓던 온천수까지. 글을 쓰는 지금도 어느 하나 생생히 떠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또 신기한 여러 지형들로 가득했던 예류지질공원 역시 인상깊었는데, 특히 버섯바위와 여왕머리바위는 사진으로 접했을 때보다 직접 봤을 때 감동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펀폭포에 방문했을 때 그 크기와 폭포수가 떨어지는 맑고 시원한 소리, 희미하게 보이던 무지개 등의 자연환경이 다른 답사지들에 비해 훨씬 오래,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답사지에서 찍은 영상들을 기반으로 3분가량의 영상을 제작해 편집한 경험 역시 값졌습니다. 영상으로 담아낸 3박 4일의 답사 일정이 더욱 알차게 느껴졌고, 이 영상을 통해 나중에도 대만을 쉽게 추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들과, 또 동기들과 교류하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대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대만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도 그 관심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다짐이 듭니다.

이다인(23)

나는 사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해외 답사를 너무 가보고 싶었다. 내가 공부하면서 봤던 대부분의 유물이나 유적지는 한국사에 치중된 것이 많았는데 외국의 유물과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답사는 나를 설레게 해줬다.

4일동안의 대만 답사 활동 중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국립 중정 기념관이다. 이곳은 신해혁명 이후 쑨원과 함께 자유중국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던 장제스(장개석)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당인데, 여행 3일차에 방문해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에서 보아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대만 사람들이 장제스를 기억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었다. 장제스의 거대 동상을 보기 위해 오른 89개의 계단, 계단의 당긴 의미 그리고 계단을 오르고 난 뒤에도 우려했어야 하는 건축물. 모든게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 높은 위치에서 장제스는 언제나 대만과 그 국민들을 바라본다. 인자한 미소와 함께 말이다. 내가 국립 중정 기념관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이지 않나 싶다. 다시 한번 대만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곳을 모두 둘러보며 그곳에 아름다움을 차분히 관람해 보고 싶다. 사학과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답사 활동을 함께하며 사학과에 오고자 했던 내 의지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고, 대만의 박물관을 답사하며 나의 꿈을 향해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꿈이 희미해져 갈때쯤 이 시간들을 떠올리며 노력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답사의 추억

2023.10.31~2023.11.03

이동하(23)

저는 이번 '글로벌 역사콘텐츠 탐구' 수업에서 진행한 답사를 통해 대만에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패 키지 여행으로 가족들과 한 번 다녀왔던 대만이지만 이번에는 답사라는 학술적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던 만큼 그 전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게 남은 곳은 고궁박물관입니다. 압도적으로 크고 많은 공간들에 전시된 정교한 작품들을 관람하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상아를 깎아 만든 여러 겹의 공 모양 조각품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가이드 선생님의 심도 있고 깊은 설명은 고궁 박물관 유물들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유물들이 정말 많았던 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 박물관의 마감 시간이 되어 마지막에 급히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 못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으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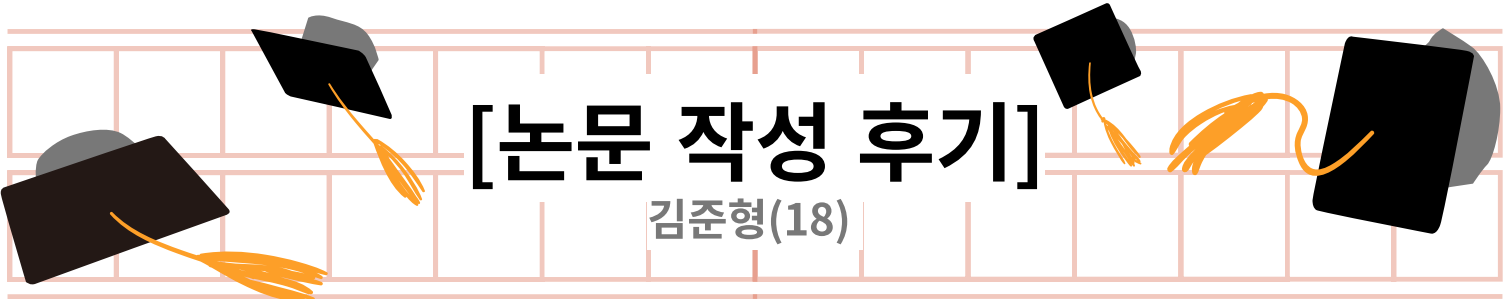
그리고 예류 해상공원은 대만의 특별하게 아름다운 지질환경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비단 유명한 여왕바위나 하트바위 뿐만 아니라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깎여 자연스럽게 생긴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국립대만박물관도 기억에 남는데, 더위에 지친 저에게 소중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동식물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순 없었던 것 같기에 기억에 더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정기념당은 저희 이번 답사의 주제인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대만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전시관을 통해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 역시 설명하기 전부터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이것이 더 슬픈 역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내기 때 다녀온 이번 답사는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처럼 심도 깊고 학술적인 탐구를 하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이곳저곳을 따라 다니며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술적 경험들은 분명히 후에 좋은 양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뜻깊고 행복한 경험이라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

하소이(23)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2학기 추계답사에 참여한 사학과 23학번 하소이입니다. 운이 좋게 새내기 때 경험한 첫 답사로 해외 답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을 통해서 대만의 유적지 뿐 만 아니라 대만의 민족, 언어, 문화 등 잘 몰랐었던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도 말씀하셨던 유홍준 작가님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구절이 답사에서 가장 생각났습니다. 보러갈 유적지에 대해 미리 발제를 하고 둘러보니 몰랐으면 놓쳤을 부분들을 빠짐없이 볼 수 있어 더욱 많은 것을 얻어갔던 기회였습니다. 모르는 점을 발견하면 바로 교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 더욱 생생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생각하지 않았을 것들도 다른 학우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해외답사가 답사의 첫 경험인 만큼 많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었지만, 교수님과 학우님들 덕분에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든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논문 작성 후기]

김준형(18)

2022년 1학기에 복학하면서부터, ‘졸업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 왔던 것 같다. 정말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정규학과와 논문 수업을 모두 마치고 작성 후기를 쓰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기도 하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여럿 있었다. 주제 결정에 고민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고, 그 후에도 큰 방향성이나 디테일한 구성을 거의 하루마다 고치려 시도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기들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나와 상담해 주었고, 그 덕분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을 수는 없지만, 이 글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내 졸업논문의 주제는 근세 말 ~ 근대 초 일본사와 한일관계사의 중간 정도에 있는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나는 일본 정치 기구의 성격이 뒤바뀌었던 보신[戊辰] 전쟁이 한국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주제였다는 점이었다. 보신전쟁을 기준으로 이전은 에도 막부가 조선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는 메이지 정부가 조선을 침략하는 형태의 관계로 바뀌었는데, 그 기점인 보신전쟁이 한일관계사적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정한론’이 메이지유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정한론’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한론’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초 조선명시관이 대표적 정한론자인 요시다 쇼인을 거쳐 이어져 오다, 윤요호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는 흐름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메이지유신에서 활약한 무사들이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제자였거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신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러한 사상이 개입되었는지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설명을 반박하기보다,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싶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로 나온 내용은, 막부 말기 무사들이 보신전쟁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얹힌 복잡한 정치적 대립이었고, 이 시기까지 해당 무사들이 조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사료는 없었다.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점은 1870년대 강화도 침략 준비 시기부터였으므로, 이들을 정한론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조선명시론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즉 정한론과 조선명시관이 서로 같지 않음을 제시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일본사와 한일관계사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논문 주제로 선택한 입장에서 배경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인하역사연구회나 다른 전공 수업 외 활동에서 꾸준히 일본사를 공부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 제대로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 다른 어려움은 외국어로 된 사료 읽기에 대한 것으로, 한자와 한문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하고 생각했다.

논문을 쓰면서 교수님들의 도움이 논문 작성 경험이 없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주제와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준 친구들 덕분에 잘 걸어들 수 있었으며, 실제 작성 과정에서는 선배들로부터 일본어 및 한문 사료 읽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만일 나 이후에 누군가 일본사나 한일관계사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원만하게 졸업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이 글에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논문 작성 후기]

오현석(18)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인하대학교 사학과 학과지에 제 부족한 글을 실을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글을 빌려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시고 학과지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권유하신 임학성 교수님께 큰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졸업논문으로 쓴 글의 제목은 「한국전쟁 이후 인천지역 노동운동의 전개-“대한노총(1946~1960)의 활동 중심으로-」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로는 우선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학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인천 출신이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렇기에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다니면서 인천에 대해 공부해보는 것은 매우 뜻깊었던 기회였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 집안이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웅진반도에서 월남한 실항민이었기에 논문을 쓸 주제를 찾다가 이런 저의 가정사를 활용해보고자 했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저는 50~60년대의 인천 현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의 노동운동 전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총은 현대 한국노총으로 전신으로 최초의 합법노조입니다. 제가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로는 노동운동이 주로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민주노조 활동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이 쓴 ‘87, ’88년 정치위기와 노동운동: 인노련 선집이 있는데 노동자들의 시선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글이지만 민주화 운동 측면만을 다룬다는 점이 한계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 자료로는 주로 신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와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등 고신문의 디지털 아카이브나 동아일보 등의 제공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1차 자료로서 사용했습니다. 2차 자료로는 여러 단행본들을 중심으로 참고했는데, 임학성 교수님의 조언으로 인천학연구에서 많은 참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노총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성과를 낸 임송자 선생 등의 연구자료에서 중요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인천지역의 노동운동 전개에 월남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우선 1장에선 해방 후 한국 노동운동의 전개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충돌과 이후 대한노총의 활동을, 2장에선 월남민의 인천으로 이주와 그 파장, 3장에선 월남민의 존재가 인천지역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과 지역적 특성의 의의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월남민의 존재가 인천지역 노동운동에 준 영향이 지역적 특수성을 부여했고, 인천 특유의 노동운동 현상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아직 부족함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노총이 직접 생산한 자료를 구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에 형성된 월남민 디아스포라가 노동운동을 통해 인천사회에 준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 점이 제 논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족한 글을 등재하도록 도와주신 임학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사학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좋은 한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논문 작성 후기]

정우혁(18)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수강신청 설명회를 듣던 당시 내 눈에 들어온 ‘역사학 논문작성법’은 그냥 활자에 불과했다. 주변에 논문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저 나에게 논문은 구전되어오는 설화같은 존재였지만 가끔 과 사무실에서 볼 수 있던 논문들은 무언가 위엄 있었으며 선배들이 4년간 쌓아 올린 지식과 학습의 결정체인 듯해 신성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펼쳐 훑어보면 이걸 내가 과연 쓸 수 있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복학생이 된 나는 먼저 논문 수업을 듣는 동기들의 앓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무턱대고 겁을 먹고 말았다. 그래서 논문의 시간이 다가올 때 방황하지 않도록 막연하게나마 주제를 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마침 복수 전공 수업의 팀플 발표 주제가 2차 세계 대전 시기 연합국과 추축국의 선전 전략 분석이었기에 지금의 논문 주제를 자연스레 정할 수 있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자연스레 선전이라고 하면 으레 떠올릴 수 있는 연설이나 라디오, 포스터만을 생각했었지만, 당시 광범위하게 발행된 그림엽서도 선전 수단으로서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디오, TV 등 대중 미디어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다방향 미디어의 발전으로 자연스레 현재의 우리는 책, 신문, 잡지, 엽서와 같은 인쇄 미디어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파급력에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20세기 초까지 인쇄 미디어는 복제 기술의 발달로 구텐베르크 이래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아 세상과 세상을 연결 짓는 하나의 창이 되었다. 동일한 내용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널리 퍼져간다는 특성은 의도에 상관없이 수용자가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게 했고, 그림엽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스란히 지닌 매체였다. 나는 그림엽서가 다른 선전 수단과 다르게 천천히 수용자에게 스며든다는 점에 주목했고 일제가 이러한 그림엽서를 어떻게 식민 관념을 재생산하는 데 활용했는지에 대해 논문을 쓰고 싶었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 그림엽서 발행과 한국 식민 지배 정당화를 위한 선전 전략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먼저 논문 작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당시에 발행된 그림엽서의 종류 파악과 관련 서적, 논문을 찾아 기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음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그림엽서는 발행 주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등의 권력 기구가 발행한 관제 엽서, 민간 기업이 발행한 사제 엽서는 주된 목적이 각각 식민 정책 홍보와 이익 창출로 서로 달랐지만, 엽서 속 사진에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표상이 다분히 담겼다는 점에서는 성격이 비슷했다. 명확한 발행 주체 구분 없이 주제별 분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관제와 사제의 성격 차이와 공통적인 선전 전략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문 2장은 관제 그림엽서 중 조선총독부 시정기념 엽서와 철도국 관광 홍보 엽서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조선총독부가 설립된 날을 기념한 엽서와 총독부 산하 기관인 철도국의 관광 상품 홍보 엽서이다. 두 엽서 모두 한국 병탄의 역사적 필연성을 제시하고 근대화 정책의 성과를 선전해 식민 지배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했으며 한국을 관광 상품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한국의 공간을 파편화하고 재배치했다.

본문 3장은 사제 그림엽서 중 ‘일한합방’ 기념 그림엽서와 한국 풍속 관련 그림엽서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민간업체가 1910년 한일병탄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엽서와 한국의 전근대적인 풍속을 담아낸 엽서이다. 두 엽서 모두 새롭게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지도를 시각적으로 활용하거나 한반도 침략과 관련된 인물과 사건을 활용해 한일병탄에 역사적 필연성을 부여하며 한국의 전근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진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재생산해 식민 지배 통치에 대한 합리성을 강조했다.

논문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선전과 같은 의식적 행위에는 수용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용자의 태도가 변용되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용자인 구매자들이 결국 일제의 선전 전략대로 관념을 형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당시 언론 자료나 심문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인에겐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긴 했지만 논문 작성에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논문 작성을 마치고 소감문까지 작성하니 정말 졸업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 난다. 논문 작성 과정이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논문 작성을 통해 4년간의 공부에 마침표를 찍은 듯해 시원섭섭한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역사학 논문작성법 강의를 통해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임학성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충고를 전해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학부연구생 후기]

장경민(19) - 학부연구생 수업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9학번 장경민입니다.

학부연구생 프로그램 소개와 1년 동안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선배님들과 학부생이 함께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대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맹자집주 한문 강독과 수업에서 정해진 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문 강독 수업이 시작되기 전,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매주 5~10분 정도 한문 쪽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문 쪽지 시험 다음으로 한문 강독이 진행되는데, 강독은 한 명씩 한문을 읽고 해석하면 내용과 문법에 대한 교수님의 부연 설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의 한문 강독 수업이 끝난 뒤, 발제와 토론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고, 책의 요지와 이에 대한 의문을 A4 용지 반 매에서 한 매 분량의 글로 썼습니다. 그런 다음 이 글을 가지고 수업에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교수님의 정리를 통해 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학기에는 파멜라 카일 크로슬리의 『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강선주 역, 2010)를 읽으며 지구사 연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2학기에는 앙드레 슈미드의 『제국, 그사이의 한국 1895-1919』(정여울 역, 2007)를 읽으며 제국주의 팽창 시기 한국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문 강독 수업과 발제·토론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공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컸습니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올해 복학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 고민과 ‘3학년’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1학기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압박감 때문에 필요한 한문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였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한문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1학기가 끝날 때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름 방학 동안 ‘과연 1학기 때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2학기 개강 이후에도 9월 몇 주 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학부연구생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언, 그리고 대학원 선배님들과 학우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었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문 강독 수업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매일 10번 이상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배운 내용을 소리 내어 읽고 썼습니다. 또한 이전에 썼던 글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여 이를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글에 대한 피드백을 두려워해서 글쓰기를 주저하였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서서히 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겁을 먹고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공부에 자신이 없었고 불안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학부연구생 수업에서 한문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매주 글쓰기 훈련을 통해 글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고쳐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씩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학기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 두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과 노력입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기본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서서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와 같이 공부에 고민이 있는 학우분들에게 용기를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부생 취업 후기

한세민(19) - 2023년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입행원 합격 후기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사학과 학우님들. 저는 인하대학교 사학과 19학번이자, 이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신입 행원 채용에 최종 합격한 한세민입니다. 사학과 학과지에 제 글이 실린다니 참 영광스러운데, 저도 이런 후기를 처음 써보는 터라 부족한 점이 많아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글을 써야 우리 과 학우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한과 우리은행 면접 준비 과정을 알려드려야 할지, 전반적인 금융권 준비 방법을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사학 이외의 분야로 진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일단 제 우리은행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며 나머지 것들을 살짝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간단한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휴학을 하고 5개의 금융기관에서 인턴과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관들은 모두 '기업 금융'에 특화 되어있는 전문 기관이었고, 저 또한 다양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직접 대표님을 만나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일도, 그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등급을 평가하는 일도, 기업을 비재무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증권사 리서치 업무처럼 기업금융, 정책금융, 해외 금융권 동향을 팔로우 업 하는 일도 담당했었습니다. 총 근무 기간으로 치면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기업금융에 특화된 은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전문성 있는 기업금융 업무를 시켜줄 수 있는 우리은행을 목표로 이번 하반기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은행업 내에서의 평가, 점유율, 미래 발전도, 연봉 등이 훨씬 좋은 리딩뱅크이기에 현재는 신한은행을 선택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서류전형

저는 서류에서 강조했던 것이 인턴 경험입니다. 저는 자격증보다도 인턴 경험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1금융권은 2금융권의 현직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꼭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만 붙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큰 시간을 내지 않고도 현직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턴 경험은 꼭 추천해 드립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도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글도 많이 쓰면 필력이 늘듯이 자기소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걸리던 것이 하루가 걸리고, 그 하루가 반나절이 되고, 그 반나절이 몇 시간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이나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금융권에도 서류를 정말 많이 넣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감이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게 꾸준히 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금융권(은행, 금융공기업, 카드사) 서류는 거의 모두 합격했으나, 비금융권 서류는 하나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쓰는 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매번 비금융권에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여기도 써야 하나?' 싶은 기업에도 무조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조차 안하면 0%의 확률이지만 지원하는 순간 1% 확률이라도 생기는 거니까요.

학부생 취업 후기

한세민(19) - 2023년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입행원 합격 후기



2. 면접 전형

우리은행은 압박 면접으로 악명이 높은 은행입니다. 또 이런 면접을 3번이나 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일례로 토익 점수가 높으면 왜 이 토익점수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왜 여길 지원했냐고 물어보고, 토익 점수가 낮으면 우리은행에 지원하기엔 토익 점수가 너무 낮은데 어떻게 생각했냐고 물어보는 은행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상하지 못한 질문과 끝이 없는 꼬리 질문, 말문이 턱 막히는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마시고 수학 문제 풀 듯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세요. 면접관들은 절 떨어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붙이려는 사람입니다. 특히 끝이 없는 꼬리 질문을 받는 경우는 지원자님께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면접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개인질문과 직무질문, 인성 질문이 주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전반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면접 전형은 PT 면접, 토의 면접, 직무 인성 면접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T 면접입니다. PT 준비는 평소에 경제 뉴스를 많이 읽고,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T보다 더 중요한 건 PT가 끝난 후에 진행되는 Q&A시간입니다. 이때 현직자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는데, 절대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현직자분들은 제 논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찌르십니다. 저도 맨 처음에 말문이 턱 막히는 질문을 받고 3번째 질문까지 이상한 말을 반복했는데 요. 이러다 정말 떨어질 것 같아서 중간지점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답변했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로 밥도 면접관과 같이 먹는 만큼, 체력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체력 관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면접 중에 저혈압이 와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면접까지 오셨다면 실력은 입증되신 겁니다. 다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최종면접은 정말 재야의 고수만 남았기에 모두가 다 말도 잘하고 거의 대부분 2금융권이나 타 금융권에서 재직하는 현직자입니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이 기업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하고, 내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 실무진이 아닌 '임원'이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선배들과 면접을 본 것이라면, 이제는 교수님과 면접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필기 준비

우리은행은 필기를 안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필기를 봅니다. 관련 문제집을 꾸준히 푸셔야 하며, 이건 각 회사마다의 문제집과 해당 직렬(전공)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필기 탈락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 무너지시지 마시고, 저희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으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계사 준비하는 강의와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학기(12학점+ 논문)와 병행해서 취업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일에는 과제, 시험, 논문, 자기소개서 쓰기, 필기 공부를 하고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필기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루에 필기시험만 두 번 본 날도 있었고, 9월부터 12월 초까지 5시간 이상 잔 날이 손에 꼽습니다. 실제로 몸이 정말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셔야 이 험난한 취업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3년 초부터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언제쯤 공고가 뜰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했습니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전략을 세웠고 다행히 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 좋게 23살에 첫 취업에 성공했지만, 사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30살 넘는 취업준비생 친구들도 정말 많고, 1금융권 신입은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 ‘나만 취업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건가?’라는 의심 하지 말고 준비하신 그대로 계속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흔들리지 않고 하던 것 계속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잘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4. 하고 싶은 말

사실 A4 한 페이지만 작성하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취업은 완전히 정보싸움입니다. 제가 1, 2학년 때 제게 이런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있었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종종 부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전공자이다 보니 이쪽으로 취업한 선배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인턴이나 취업 준비 방법을 많이 알려줘서 저보다 훨씬 많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러다보니 그 시간들을 낭비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불편하실 수 있더라도 제가 준비해왔던 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선배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면접 보러 갈 때 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이준갑 교수님, 임학성 교수님을 비롯한 사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꾸준히 응원해 준 18학번 선배들과 19학번 동기들, 그리고 몇몇 20학번, 21학번, 22학번 후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역사학대회 수상 후기

박상진(18) - '답사'란 무엇인가?



어느새 4학년이 되어 지난날의 학과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로는 ‘답사’를 자주 다니려고 했던 것입니다. 학기에 한 번 가는 사학과 정기답사 외에도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적지나 학기 중 수업 때 배웠던 곳을 혼자 또는 마음이 맞는 학우들과 함께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답사는 ‘新진랍풍토기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캄보디아 지역을 다녀온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2022년도 2학기에 사학과 전공선택 과목이었던 최병욱 선생님의 '동아시아사 특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강의자료였던 《진랍풍토기(眞臘風土記)》를 해석하며 캄보디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된 학생들이 직접 현지답사를 계획, 진행하였습니다. 《진랍풍토기》는 13세기 원나라 사절의 수행원으로 진랍(캄보디아)을 방문했던 주달관(周達觀, 1266~1346)의 기록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캄보디아까지의 여정과 함께 1296년부터 1297년까지 약 1년간 체류하며 저자가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13세기 캄보디아의 역사는 물론 동시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문화 양상을 광범위하게 알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저희는 이 무렵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주달관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번 답사는 크메르인들의 성소였던 ‘쿨렌산’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와 성곽의 도시라는 뜻의 ‘앙코르툼’, 크메르 제국 시기 생명의 근원이었던 ‘톤레삽’에 이르기까지 총 5박 7일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준비하며 여러 자료를 접하기도 했고, 답사 중 특별한 순간들이 많았기에 귀국한 뒤 그저 좋은 추억거리로만 남기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작년도 ‘제66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역사콘텐츠경연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진랍풍토기》를 비롯한 자료와 사진들에 답사 때 느꼈던 감상을 엮어 대회에 출품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국역사학대회’란 역사학 분야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발제·토론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로, 사학과 학우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두어 이번 저의 경우처럼 참여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중에 사실 이러한 콘텐츠 분야는 이번에 처음 다루어본 것이라 대회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전체 43개 팀 중 2위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들게 된 수상 이유로는 ‘답사’를 주제로 한 콘텐츠 중 가장 참신했으며, 기발한 주제 의식과 함께 뛰어난 현장감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답사에서 《진랍풍토기》를 통해 주달관과 빨리오를 마주했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옛 캄보디아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도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특히 김도현, 정효순, 차준협, 장영광 네 학우와 답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더욱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진랍의 세계에 발을 들이도록 도와주신 최병욱 선생님과 김종휘 전 조교님, 그리고 아쉽게도 답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 수업을 들으며 경쟁보다는 상생의 기치 아래 지적 성장의 순간을 나누었던 김미지, 김경빈, 현규빈 학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국역사학대회 수상 후기

박상진(18) - '답사'란 무엇인가?



‘답사(踏査)’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의 관광과 달리 사학도로서의 답사는 경험할 수 없는 과거를 탐구하는 역사학에서 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여러 답사를 통해 단순한 역사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그 시대 또는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옛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만들 수 있었던 점은 사학과 학도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삶의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사'란 곧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학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곱 번의 학과 정기답사와 함께 수차례의 비정규 답사에도 적극 참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22년도 2학기 경북 답사에서는 한 후배 학우님 덕분에 그 부친이신 무형문화재 선생님께서 옛사람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도자기 빚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학생들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3년도 1학기 전북 답사에서는 사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타과 학우들과 외국인 교환학생 학우도 참여하며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한데 어울리는 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학과 학생이라면,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답사에 한번쯤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답사를 다니며 좋은 인연이 되었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역사학대회 수상 후기

박상진(18) - '답사'란 무엇인가?



***아래 조각글들은 '답사'에 대한 사학과 선생님들의 말씀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따로 적어 간직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답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술답사란 낮에는 ‘학[學]’으로 신(身)을 기르고, 밤에는 ‘술[酒]’로 심(心)을 기르는 거야!”
-임학성 선생님- 1학년 1학기, 천주교 사적 답사에서

“무엇이든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길 바라네.”
-이영호 선생님- 1학년 2학기, 금강 유역 답사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곳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을 즐기고, 또 다녀와서는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어야 해요.”
-박은경 선생님- 2학년 1학기, 강원 영동 답사에서

“지금 자네가 밟고 있는 이 길 말이야... 예전에는 누가 여기를 걸어 다녔을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나다녔을까?”
-이준갑 선생님- 2학년 2학기, 중국 북경 답사에서

“하수의 답사는 그저 관광을 다닌다. 중수의 답사는 시간의 변화를 공부하고 기억하려고 한다. 고수의 답사는 시간과 공간이 변화해온 흐름을 느끼고 이해한다.”
-우경섭 선생님- 3학년 1학기, 역사유적탐구 강의에서

“그곳 음식을 먹고, 그곳 말을 하고, 그곳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과도 교감하며, 여유와 흥취에 함께 녹아드는 것이네.”
-최병욱 선생님- 3학년 2학기, 동아시아사특강 강의에서

“늘 궁금해하고 늘 물어보아라. 현지의 좋은 음식 많이 먹고, 현지의 좋은 술 많이 마셔라!”
-윤승준 선생님- 3학년 겨울방학중, 제주 특별답사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좋은 곳, 많이, 자주 가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류창호 선생님- 4학년 휴학중, 근대 전북 답사에서

“답사는 나의 한낱 보잘 것 없음을 깨닫는 과정의 연속이더라. 그러면 어느 순간 두렵기도 해. 그래도 어떻게든 나아가려는 게 연구자로서의 삶인 것 같네.”
-서영대 선생님- 4학년 여름방학중, 학교 산책하다가

교환학생 합격 후기



박상진(18) - 일본(日本)으로의 교환학생 신청 및 합격 후기

안녕하세요. 사학과 4학년 박상진입니다. 2024년도 1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일본 니가타대학[新潟大学, Niigata University]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에 학과장님의 요청으로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교환학생 지원 동기

사학과 선생님들께선 학생들에게 늘 외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 자주 나가서 많은 경험을 쌓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지난 학기 초에 JLPT(일본어능력시험) N2를 취득하였고, 평소 일본 지역에 관심과 흥미가 깊어 일본으로의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하대박물관과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인천 산업유산 디지털 아카이브화 사업’의 연구보조원(RA)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주요 활동으로는 인천 지역의 산업 유산과 그 일대를 답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며, 관련 역사 기록물들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인천이라는 지역이 수도와 가깝고 항구가 발달하여 일제 식민지기를 전후로 하여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 대부분이 일본어로 생산되었고, 이들을 통해 일본의 개항도시들도 함께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니가타는 일본 혼슈 중부에 있는 지역으로, 예부터 일본 최대의 곡창 지대였으며 인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 5대 개항장 중의 한 곳이기도 하며, 인근의 사도 광산의 개발과 함께 연안 공업단지의 조성은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의 역사적 특징과도 공통점을 공유하는 니가타 지역에 큰 흥미를 느꼈고, 특히 이전부터 니가타대학과의 연구 교류를 진행하셨던 임학성 선생님의 추천으로 니가타대학으로의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일본어 실력 향상을 위해 했던 노력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오랜 기간 애니메이션 시청으로 수준급의 청해 실력을 갖춘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어를 접한 경우가 아니었기에 청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상학과를 찾아가 ‘실용일본어’ 강의를 청강하여 경어의 사용과 회화체의 구사를 익히며 입과 귀가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2학년 때에는 근대사 전공 교수님의 TA를 맡아 한일관계 관련 자료를 자주 탐색하게 되었고, 3학년이 되어서는 위의 인천 산업유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련 사료들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문과 일본어 독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작년도 전공 강의 수강생 중에는 일본인 교환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먼저 다가가 여러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고 이후로 서로 도움도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기마다 한 번 진행되는 학과 정기답사를 소개하게 되었고, 함께 참여하며 많은 추억도 쌓으면서 회화 능력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환학생 지원 과정(1)

7월에 JLPT를 응시하고 8월 말에 결과가 나온 뒤부터는 모든 일정이 급하게 휘몰아쳤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제처에서 공지가 나오는 모든 일정을 사전에 잘 숙지해야 하며, 저와는 다르게 가급적 넉넉하게 여유 시간을 잡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이전 학기 개강 즈음에 신청 기간이 예정되어 있기에 24년도 1학기에 교환학생을 가는 저의 경우, 23년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합격 후기



박상진(18) - 일본(日本)으로의 교환학생 신청 및 합격 후기

교환학생 신청서는 해당 기간 내 포털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 단계로는 포털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다면 학과사무실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먼저 한글 파일을 이용하여 모든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포털에 붙여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대학을 최대 2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수학계획서는 1지망 대학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환학생 신청 시 지원자의 전체 학점, 어학 점수와 함께 수학계획서의 내용이 당락을 결정하니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서와 수학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출력 후 학과장님의 직인을 받은 뒤 어학시험 성적증명서와 함께 스캔하여 국제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제처의 심사를 거쳐 약 한 달 뒤 최초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교환학생 지원 과정(2)

최초 합격이 발표되어 희망 대학이 결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가마다,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에 현지 사이트와 대사관 등에 접속하여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대학은 대체로 ①지원서, ②성적증명서(영문), ③재학증명서(영문), ④여권 사본, ⑤건강진단서, ⑥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⑦잔액증명서, ⑧증명사진을 요구합니다.

①은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지원 동기, 현지 수학계획, 귀국 후 계획 등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와 ③은 '인하대 증명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는 여권 정보와 소지인 서명이 적힌 페이지를 스캔합니다. ⑥은 ①과 비슷하며,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현지 대학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⑦은 지원자가 현지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고 무난한 생활을 영위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최소 생활비 40만 엔(월 8만 엔x5개월)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당일에 한해 본인의 계좌가 정지됩니다. 한화 약 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증명서에만 잔액이 적혀 있으면 되기에 저는 일시적으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물론 출국하기 전에는 이만한 금액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⑤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곳에는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 이들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지도 앱을 통해 검색되는 주변의 모든 병원에 전화 연락을 취하여 찾을 수 있 하지만 일본은 ⑤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곳에는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 이들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지도 앱을 통해 검색되는 주변의 모든 병원에 전화 연락을 취하여 찾을 수 있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검사 항목이 국가건강검진과 겹쳐 최대 10만 원에 달할 수 있는 검사비를 2~3만 원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현지 대학, 일본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전하고 싶은 말

예전에는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선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교류가 소원해진 탓인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사학과에서 대학 생활을 하거나 추후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려는 사학과 학우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활동 후기

2023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 및 수상 후기
- 사학인이여, Just Do Anything! -



안녕하세요, 종소리 팀입니다! 지난해 저희는 ‘종묘’를 주제로 ‘2023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임학성 교수님과 김종휘 전 조교님을 통해 이번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공이 사학이기도 했고, 팀원 모두가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 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종묘에 얹힌 이야기와 가치가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사람들 마음에 울리도록 팀명을 ‘종(宗)소리’라고 지었습니다.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는 전국 세계유산 현장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80개의 대학생 팀이 참여했기 때문에, 각 팀이 차별성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이전의 활동 사례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주제를 깊이 있게 고찰한 팀도 있었고, 내용의 깊이보다는 홍보에 방점을 둔 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활동 주제에 차별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놓치기 쉽지만, 현대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종묘의 숨겨진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종소리’ 팀에서 실시한 주요 활동을 소개하자면 먼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오류를 발견한 뒤 정정하였고, 오디오 도슨트와 점자 문구를 담은 아날로그 AR을 제작하여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축제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시민들과 ‘현대판 종묘’를 완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종묘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고 교육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종묘의 의미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대외활동 후기

2023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 및 수상 후기
- 사학인이여, Just Do Anythi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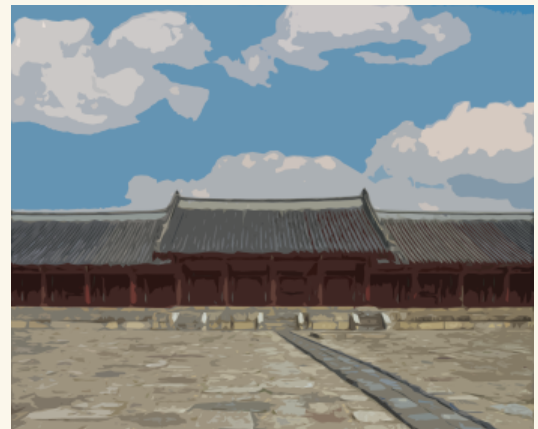


물론 힘들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지킴이 활동 기간에 종묘 정전이 보수공사 중이었기에 이는 지킴이 활동에 제약되기도 하였으며, 종묘를 찾은 관람객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공사는 몇십년 혹은 몇백 년에 한 번 진행되는 것이기에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한 번뿐인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소리’ 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착안하여 아쉬움은 뒤로 하고 반대로 역사의 한 순간을 경험하였다고 생각해보는 것으로 시민 인식을 전환하는 활동으로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겨울, 최종 발표날까지는 다른 팀들이 어떤 활동들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그동안 우리 팀이 열심히 해왔던 것을 알기에 충분히 수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무사히 최종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3위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위 1,2위가 문화재청장상이었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ㅎㅎ;;)

사실 그동안 사학과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책을 읽고, 의미를 생각하고, 글을 쓰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지킴이 활동의 핵심이 문화유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고, 이는 우리가 학과에서 계속해오던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그 까닭으로는 저희 팀이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했고 활동의 참신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의 본질을 이해하기 보다는 화려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활동을 추구했던 팀이 더욱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을 보며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화려하게 눈에 띄도록 결과물을 어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전달하는 훈련과 더불어 영상물, SNS, PPT 발표 등 다양한 수단을 다룰 줄 알고 활용해보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대외활동을 통해 저희가 많은 것을 해보고 또 한계가 무엇인지도 깨달았듯이, 학우 여러분들도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경험의 확장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INHA UNIVERSITY